2분기 실적을 확인하라

주가 하락 -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주식 시장의 이중적 진화 결과

LG전자 전체의 최근의 주가 하락은 주식 시장의 이중적 진화에 기인한다. 1) 1분기 제적적 비수
기로 전체 휴대폰 및 스마트폰 시장이 충소되었음에도 삼성전자만의 스마트폰 성장에 비
교도 휴대폰 사업부의 궤적적인 상장 동력이 없어진다는 평가와 2) 1분기 Set업계들의
마케팅 비용 감소는 당연한 것임에도 비용 줄이 이익 난 것으로 1분기 이익이 과소 평가 되
있다. 삼성전자 역시 전분기 대비 2조원의 마케팅 비용 감소가 1분기 이익 개선의 중요한
부분이었음에도, LG전자만이 경쟁력에 대한 대단한 과거 발생한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주식 시장의 쏘림 현상 때문인 것이다.

산업의 경쟁 요소 변화에 따른

당사가 LG전자에 대해 BUY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LG전자를 돌려놓은 산업 전
체의 열악한 움직이기 때문이다. 휴대폰 산업의 경쟁 요소가 하드웨어 제조 및 원가 경쟁
력으로 이전되어 그룹 내 수직 계열화된 부품 경쟁력이 차별화되고 있으며, 일본 업계 탈
들에 따라 TV 부문의 M/S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이다. 또, 철강 등 원자재가 하
락에 따른 가전 부문의 수익성 개선 역시 하반기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

실적과 주가와의 관계는 증여절 것으로 판단

주식 시장의 이중적 진화에 따른 1분기 수익성의 주가 반응은 2분기 실적을 통해 재평가될
것으로 판단한다. 펀더멘털의 Turn-around가 2분기 실적을 통해 재확인 될 것으로 예상
하며, 2분기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Outperform할 것으로 기대한다.